

묵향 그윽한 편지 속 선인들의 삶과 가치

권수용 조선대 연구원 ‘봉우유신’ 편역

성리학 대가 기정진과 제자간 편지 망라

노사학과 근대 문화 연관성 쉽게 풀이

“사제·동문간 믿음은 지켜야 할 덕목”



“무릇 얻은 것이 있고 의심난 곳이 있으면 모두 그때그때 기록하여 봉우(朋友)들을 만났을 때 서로 의논하여 정확히 하는 것이 어따한가?”

노사 기정진(1798~1879)이 세상을 뜨기 전 1877년 제자인 김유(1835~?)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이다. 노사는 제자인 김유에게 학문을 탐구하면서

의심난 부분은 메모해 두었다가 벗들을 만나면 서로 의논해 확정하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노사 기정진은 호남이 배출한 성리학의 대가였다. 19세기 근대 유학을 부흥시키고 발전시킨 학자였다. 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노사학단’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비롯 전국에 분포할 정도로 대규모 학파를 이루었다.

최근 노사 기정진과 제자들이 주고받았던 편지를 토대로 엮은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조선대 한국학자료를 편역한 권수용 연구원이 편역한 ‘봉우유신’(심미안)은 노사학단 인물들 간의 교유관계와 진필 서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 등이 수록돼 있다.

“봉우(朋友)란 동문 또는 동지를 뜻하지요. 함께 모여 학문이나 기술을 강론하고 연마하는 사람들인데 결과적으로 나를 성장하게 하는 소중한 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수용 연구원은 “우리 선조들은 스승과 제자, 동문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견지했다”며 “그 가르침은 시간을 넘어 오늘날에도 지켜야 할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고 덧붙였다.

책에 사용된 간찰(편지)은 고산서원이 소장한 것이며



1878년 기정진이 정사를 지어 답대헌이라 이름 짓고 학문을 강론하던 장성 고산서원.

〈심미안 제공〉

일부는 장성 행주기씨 금강종가와 그 일파인 연파 후손가가 소장한 자료다.

“우리 지역 노사학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기정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데 제자들은 누가 있으며 이들이 근대문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쉽게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에는 기우만, 이규형, 소필기, 조의곤, 강인회 등 노사의 벗과 제자들이 나눈 편지 그리고 제자와 제자들이 주고받은 서신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의 편지는 이규형이 기정진에게 보낸 편지다.

“세악이 문득 바뀌니, 그리워하는 마음 더욱 간절합니다. 삼가 새해를 맞이하여 도리(道履·학자들의 일상생활)는 건강하시고, 주변 식구들도 모두 평안하신지요?”

편지는 이규형과 기정진의 우정이 매우 깊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녕대군 후손인 이규형과 노사는 몇 대에 걸쳐 우정을 이어왔다고 전해진다.

권 연구원은 “노사문인록에 따르면 직전의 제자, 그 다음의 제자 등 이후의 제자가 6000여 명에 달한다”며 “노사와 그 제자들을 거치지 않고는 근대 호남의 인물 연구, 문화 연구를 할 수 없을 만큼 노사학은 호남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노사의 위패가 배향된 고산서원(高山書院·전남 기념물 63호)은 장성 진원면에 자리한다. 1878년 기정진이 정사를 지어 답대헌(濬對軒)이라 명하고 학문을 강론하던 서원이다. 이후 1924년 건국 후, 1927년에는 고산서원이라는 편액을 건다. 현재는 노사의 위패와 제자인 기우만 등의 위패가 배향돼 있다.

“노사는 근대 4대 성리학자 중 한 분으로, 퇴계 이황이나 율곡 이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구한말 위정척사를 견지했던 대학자이기도 하구요. 노사와 제자들의 편지는 옛 선인들의 정신세계뿐 아니라 오늘을 반추할 수 있는 귀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설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차노휘 ‘소설 창작 방법론과 실제’ 출간

소설 창작과 이론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을까? 작가와 연구자 사이의 관점의 차이는 무엇일까?

광주일보 신춘문예(2009년) 출신 차노휘 작가가 소설 창작 과정을 밝히는 창작 방법론을 펴냈다. 창작자의 관점과 연구자의 관점이 투영된 책은 한편의 소설이 완성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차 작가의 ‘소설 창작 방법론과 실제’(시와사람)는 창작 배경, 모티브, 인물, 서사, 사건 그리고 주제 구현을 위한 소설적 장치들의 결합과 해체에 초점을 둔다. 이 과정을 통해 소설은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차 작가가 창작 방법론의 사례로 든 소설은 작가의 장편 ‘푸른 눈의 무녀’다. 광주대 문예창작과 박사학위 결과물을 개작한 것으로, 창작 방법론과 실제를 객관적 시선으로 담아냈다.

텍스트로 삼은 ‘푸른 눈의 무녀’는 소설가 지망생 청년 박지원이 겪은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박지원은 어느 날 발명지기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품미도’라는 섬에 도착한다. 품미도는 연안 주위로 짙은 해무가 낀, 하이힐과 같은 형상의 섬이다. 뒤쪽에 해당하는 곳에 만평 규모의 정원이 딸린 오래된 별장이 있다. 별장은 일제강점기 때 정신병원으로 사용되



던 건물로, 박지원은 기괴하고 신비로운 건물을 한 편의 소설 소재로 생각한다.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서론, 제2장 서사 구축과 인물 구성 방법, 제3장 주제 구현을 위한 소설적 장치, 제4장 작품창작 실제 등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3장으로 소설의 상징적 공간과 장치, 플롯, 시간 구조 등이 기술돼 있어 이론적 관점에서 소설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차 작가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육지가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배 위에서 노도 못대도 없이 표류하는 기분이었다”며 “제대로 왔는지, 내려도 되는지 자신은 없지만 있는 힘을 다 했다고 고백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 출신 차 작가는 광주대 문예창작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2년 소설집 ‘기차가 달린다’를 출간했다. 현재 광주대 초빙교수로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팝 바이올리니스트’ 알베르토 디 메이스 9일 광주공연

팝 바이올리니스트 알베르토 디 메이스(ALBERTO DE MEIS)의 공연이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남구의 하멜과 리사에서 열린다.

이태리 출신인 팝 바이올리니스트 알베르토 디 메이스는 행위 예술가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과 팝을 오가며 부드러우면서도 남성미 넘치는 그의 무대를 볼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락페라 가수 서민정이 함께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에릭 레비의 ‘I Believe’, 시크릿가든의 ‘You Raise Me Up’,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엔니오 모리코네의 ‘넬라 판타지아’ 등의 곡들이 준비됐다.

알베르토와 협연하는 락페라 가수 서민정은 락과 오페라를 접목시켜 벨칸토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알베르토 디 메이스



서민정

R석 6만원, S석 5만원, 스탠딩 3만원. 문의 010-2559-8544, 010-5041-7090./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중국에서의 한국 근현대문학 연구’

전남대, 우림걸 中 산동대 교수 강연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어거반 사업단’(단장 신해진·국어국문학과 교수)이 오는 8일 오후 2시 인문대 2호관 408호실에서 제16회 해외 석학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중국에서의 한국 근현대문학 연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초청강연의 강사는 중국 산동대학교의 우림걸(사진) 교수이다. 우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역외의 시선에서 한국 근현대문학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적·학술적 교류 증진 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림걸 교수는 북한 김령지사범대학 교육학부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어문학 교육 전문가이다. 문의 062-530-0230. /박성천기자 skypark@



‘가연하비’의 깊은 가야금 소리

7일 빛고를 국악전수관

가야금연주단 ‘가연하비(대표 정선옥)’의 제9회 정기연주회 ‘온고지신(溫故知新)’이 오는 7일 오후 7시 빛고를 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옛 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뜻으로 과거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어야 제대로 된 음악이 될 수 있다”는 사자성이 온고지신의 의미 그대로 첫 무대는 단원들의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약 30

분 동안 선보인다.

두 번째 무대는 화려하고 섬세한 음색에 많은 기교와 표현력을 요구하는 25현 가야금 연주곡 ‘궁타령의 멋’과 ‘아랑의 꿈’을 연주한다.

가연하비는 ‘가야금과 연을 맺어 하늘로 비상하다’라는 의미로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젊은 연주자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활동하는 연주단이다. 무료관람. 문의 062-350-4557.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단열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 패널

아파트, 학교, 주택,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옥상 시공

- ▶ 방수, 단열 이중효과!
- ▶ 냉·난방비 절감효과!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합리적 가격, 단 한번 시공!

※ 무료 출장 견적내드립니다.

목포권, 순천·여수권 등 대리점 모집(영업 및 시공)

TWIN 트윈스틸 (모던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45(신안동 478-18)

H 010-9229-3530

☎ 062-531-3530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한국방수협회연구원 조사 제2008-24호에 따라

발열성능시험 합격 제품!

(5분 이상 불로 가열해도 흠이/시트를 타고 연기 발생하지 않는 실험 동영상 시청)

실제시공현장

충북 옥천문화원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제 패시비얼 프로그램이 만나고 있습니다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 잔 엔디디와외의 클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 데...!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1097764호
특허 제10-0548189호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총문화학회 옥상시공 시공사례 상명대학교/광명군보건의료대학/대진대학교/태백시보건의료대학/안성시보건의료대학/강화군청/안성군청/부천시청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